

올림픽 공사 입찰 마지막 기회

시설·도로 막바지 입찰에 도내 건설업체 초미 관심

올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 및 도로를 비롯한 대형공사들의 막바지 입찰이 이뤄짐에 따라 신규 토목공사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분기 중 발주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횡성변전소·강릉변전소 신축 공사 사업에는 총 2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척~포항 동해중부선 철도건설(250억원)도 발주된다.

공단 발주물량의 도내 참여율은 5~10%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 중견업체에는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공사도 발주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실시계획을 착수한 진부역 진입도로 사업을 올해 중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도 6호선 횡성 둔내~평창 간평 45.2km, 국도 59호선 정선 나전~평창 막동 간 18.0km 등 63.2km의 진입도로 사업을 총 9개 공구로 분할 추진한다.

국도 6호선은 △횡성 둔내~평창 무이(11.1km) △둔내~무이2(8.0km) △무이~장

평(6.6km) △장평~간평(7.0km) △장평~간평2(6.4km) △장평~간평3(6.1km), 국도 59호선은 △평창 막동~마평(3.3km) △정선 나전~숙암(8.0km) △숙암~평창 막동(6.7km)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막동~마평 간 3.3km 구간은 2011년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8개 공구는 지난해 착공돼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공사 추진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전히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고 일부 사업은 저가낙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지난해 11월 건설수주 7조3466억... 전년보다 12% 감소

지난해 11월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수주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민간 신규 주거 부문은 사업 저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국내건설수주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건설수주액이 7조3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3469억원과 비교해 12%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월 8조9165억원과 비교해도 17.6% 줄었다.

국내 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 및 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488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2% 감소했다.

토목은 도로교량과 발전송전배전에서 호호세를 보였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여타 공종의 전반적 부진으로 전년 동월 1조7905억원 대비 29.9% 감소한 1조2556억원으로 집계됐다.한형용기자

금융브리핑

건설공제조합, 담보운영자금 이자율 '4.52%→4.16%'로 인하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인하를 반영,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자율은 기존 4.52%에서 4.16%로 0.36%p 내려갔다. 대상 상품은 특별담보운영자금을 비롯해 일반 담보운영자금, 공사대 확정채

권 담보운영자금이다. 특별 및 일반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을 추가 할인받으면 최대 3.5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건공은 아울러 이들 상품의 근저당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담보취득비용도 면제해주고 있다.